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황선실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지도교수 황희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황선실

황선실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주 심 철 학 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 학 박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8
2. 양육효능감	15
3. 양육참여도	18
4.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22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대상	25
2. 연구 도구	26
3. 자료수집 및 분석	2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9
1.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29
2.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도	39
3.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48

4.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50

V. 논의 및 결론 51

1. 논의 51
2.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 68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변인 분포	25
<표 2>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 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8
<표 4>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29
<표 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1
<표 6>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3
<표 7> 아버지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5
<표 8>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6
<표 9>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8
<표 10>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39
<표 1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41
<표 12>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42
<표 13> 아버지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44
<표 14>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45
<표 15>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47
<표 16>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 간의 상관관계	49
<표 17>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50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Hwang Sun Sil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ve the way for finding a theoretical solution and for encouraging fathers to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Based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key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 1, How father'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parenting self-efficacy?
- 2, How father'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 3, How do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relate to each other?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380 fathers who have a child attending kindergarten in Busan at the age of 3 to 5. Well-Parker and Choi Hyung Sung's(2001) index of self-efficacy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Lee

Hae-Kyung(2007)'s index, referred to questionnaire Choi Kyung-Sun(1992) and Jeon Hyo-Sook(1990),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child rearing involvement.

Data processing was calculated based on a correlation coefficient : T-test, F-test and Person.

Considering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parenting self-efficacy was little affected by the level of income, but the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its subcategories were affected by age,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hether wife was employed or not.

Seco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was little affected by the level of income, but the level of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its subcategories were affected by age,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hether wife was employed or no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ir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This result can be considered as follow :

The more parenting self-efficacy, the more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Looking into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based on father's demographic variables, this study tells you how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both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an find its meaning in increasing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in providing various programs and information, which makes fathers to be involved in child reari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자녀양육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양육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야기 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아버지 역할의 증대 및 변화에 관한 것이다. 즉, 자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동의 관심사로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양미경, 1996; 이용이, 2007). 이렇듯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책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오늘날의 이상적인 아버지는 부양자 역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로 변화되고 있다.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표현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적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Lamb, 1986).

흔히 유아의 양육과 사회화는 어머니의 소관이며, 아버지의 역할은 가볍게 취급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어머니는 유아의 직접적인 양육과 교육의 전담자이며, 아버지는 주변 인물에 불과한 존재로 인정되어 왔다(유안진 & 김연진, 1990).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에의 참여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물론, 그동안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변화하였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있었으나(안병철, 1997; 함인희, 1997)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 양육에의 참여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이숙

현, 2001).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어느 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때 유아 발달의 여러 측면이 더 잘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lbert, Hanson & Davis, 1982).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사회성(류도희, 은주영, 이귀옥, 2001; 정현희, 최경순, 1995; Frascarolo, 2004), 문제행동(Amato & Rivera, 1999), 생활능력(노현미, 박인전, 1999), 정서성(김광용, 이인수, 1998), 성역할(정현희, 최경순, 1995; Parke, 1981), 인지(김진, 신호식, 이신숙, 1985; Blanchard & Biller, 1981), 도덕성(정현희, 최경순, 1992) 등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이후의 성장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용이, 2007 재인용) 어린 아동의 제 발달 측면에 아버지 역할이 미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인식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유아의 지적·사회적 발달 환경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아동의 유리한 양육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수는 많지 않다(최경순, 1992; Crockert, Eggebeen, & Hawkins, 1993, 재인용). 또한 아버지 부재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iller, 1971).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학자들은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Daly, 1996).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정현희 · 최경순, 1995; Lamb, 1981; Parke & Tinsley, 198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은 아버지 자녀 양육참여에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조화선, 2005). 최근의 아버지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에 많은 책임과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이어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같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조선일보, 1999, 9, 18)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버지도 양육적인 능력이 있음을 주장한 Schaffer와 Emerson(1964)의 연구를 전환점으로 유아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그것이 유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지각과 다양한 모습의 양육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조화선, 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연령(김성희, 1989; Binner, 1977), 근로시간(이정순, 2003; Aldous, Mulligan, & Bjarnason, 1998), 근로조건(Marsiglio, Amato, Day, & Lamb, 2000), 사회적 지위(Levy-Shiff & Israelashvili, 1988), 아내의 취업상황(Barnett & Baruch, 1987), 아버지의 직업역할(강란혜, 2001)과 가족역할(이정순, 2005)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연령이나 직업여건 등 환경적 요소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양육참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정서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Duncan과 McAuley(1993)는 사회적 지원과 행동사이클 매개하는 변인으

로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인지적 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ohnston과 Mash(1989)는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Mondall과 Tyler(1981)는 아동의 놀이상황과 문제해결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능력을 판단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존재로 보고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며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자녀양육 태도 및 양육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Jahnson, Mash, 1989).

Bandure(1997, 198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 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하는 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개인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해버린다고 하였다.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

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반면, Coleman과 Karraker(1998)는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선행된 우희정과 이숙(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부모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실제로 양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근무시간, 소득,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를 알아보고 양육 효능감과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버지의 입장에서 양육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위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도는 어떠한가?

셋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에 대한 인지능력으로 정의하며 그 하위개념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이 포함된다.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최형성(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척도에서 산출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양육참여도

양육참여도란 자녀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정도를 의미하며 그 하위개념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놀이지도, 가사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혜경(2007)이 개발한 양육참여도 척도에서 산출된 총점을 양육참여도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아버지 존재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들은 정신분석적 입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일시 이론에 근거하여 아버지상은 모델로서의 초자아를 구성하고 초기의 대상관계 발달에서 어머니와 강하게 애착되었던 분리를 도우며, 오이디푸스기 동안은 성정체감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잠복기 동안 아버지와 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면 아들의 경우 성장 후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아버지의 상실은 아들에게 주는 상처가 큰데(Herzog, 1973) 여아에 비해 선천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남아들은 공격성을 관리할 외적통제인 아버지가 성장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광웅과 박성연 역, 1995). 한편, 이들의 아버지 존재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초기의 자녀양육 및 발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부재’시 발생하는 아동발달의 여러 문제점들을 학자들이 인식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최경순, 1992). 백승현(2005)은 오늘날 이 사회가 맞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가정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하고, 강안삼(1996)이 이 시대를 가리켜 사라져가는 아버지 시대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나타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위기의 중심에 ‘아버지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Stoop(2003)은 아버지 부재에 대해 아버지가 죽음, 이혼 등의 사유로 육신적으로 부재

한 경우에서부터,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부재한 것이나 다름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 ‘아버지 부재’라 칭하였으며, 아버지가 부재할 경우 자녀의 정체감 발달, 인지 발달, 정서발달, 도덕성 발달, 성 정체감 발달, 사회적 발달, 성장 발달 등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공진수, 2006). 유효순과 정원식(2002)도 아버지가 없는 편모가정에서 부성실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부성실조는 유아에게 사회성 발달, 성격발달, 및 사회적응,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주며 지적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란 가족집단의 부양자로 아버지는 주로 생계 부담자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차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다(최경순, 1992). Waller와 Hill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므로 자녀를 하나의 개인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아버지의 역할은 크게 변하였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경제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들은 아동들을 사회화시키는 책임에 매달려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력만을 제공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역할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과 도덕관을 전해 아이들의 사회화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역할로 변해가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이렇듯 자녀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Parson의 이론에서 아버지란 가족을 초월하여 자녀에게 사회제도와 가족제도 사이를 연결해주고 실행력 있는 행동 중심적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넓은 세계의 성역할 규정을 소개하고, 세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습득을 장려해 주어 자녀가 사회의 도덕 및 가치와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Lamb, 1986).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들은 성역할, 성취동기,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등 아버지가 자녀의 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녀의 성역할 발달과 아버지 역할

Parke(1981)는 아버지가 성역할 모델로써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 유형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딸이 여자답게 성장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훈육하면서 어머니에게 정서적이고 상호작용이 원만한 아버지는 특히 딸에게 건전한 성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ynn(1974)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유아의 성역할발달에 관심이 커서 남아를 남성답게 기르는 데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들의 남성다움과 딸의 여성다움은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Hall(1978)은 여아의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여아는 남성에게 대한 관심, 친밀성은 아버지로 부터 제공받은 양육을 통해 익혀지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여아의 성역할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McCord(1962)의 연구는 아버지부재 가정에서 어머니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성적갈등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며,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낮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현정환, 2002). Fisher(1976)는 아버지 부재의 남아가 아버지가 있는 남아보다 남성다운 것을 배우는데 지장

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더 복잡적이고 덜 공격적이었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존적 영향을 보인 반면 자신의 여성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자녀의 성역할 습득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을 중요한데, 최근 들어 자녀를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르기 위해서 자녀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보다 융통성 있는 양성적인 성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더 유익하다고(정현희 · 최경순, 1995; 최경순, 1992; Ckee & Obrien, 1982; Lamb, Pleck & Levine, 1985)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부모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긍정적인 성역할 지향과 자신의 성에 적합한 기본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성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유동미, 2003).

나. 자녀의 인지 발달과 아버지 역할

자녀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 아버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인지능력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Honzik(1963)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IQ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효순 · 지성애, 2004).

Lamb(1981)은 아동이 숙련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 관련되었을 때를 제외한다면 아버지의 양육은 남아의 인지적인 성장을 조장하며 아버지와 접촉이 많을수록 더욱 큰 인지적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나, 숙련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서는 아버지 참여가 오히려 해로운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여아들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적당한 거리와 자율성은 모든 상황에서 어린 딸의 인지적 숙달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남아와 여아 모두 권위적인 아버지 행동은 학업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iller(1981)는 연구에서 아버지가 계신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자녀는 인지 학습 검사에서 수학점수는 낮고, 언어점수는 높다고 하였다. 그 밖에 Parke(1981)는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과목선호 그리고 선택할 직업의 종류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버지는 유아의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 격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은 인지적 자극이 유아의 인지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고, 유아의 정서와 신체 및 인지발달은 물론 전인적 발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아버지 역할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서 보면 사회화의 대상이나 놀이의 친구로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또래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며(Parke, 1955) 아버지는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형태나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경희, 1993; 이주리, 1994; 최경순, 1992). 즉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시중을 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아버지는 아이와 놀아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아버지는 레슬링이나 술래잡기 등과 같이 보다 육체적이며, 자극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참여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덜 자극적이고 언어 중심적이며 장난감을 가지

고 놀거나 까꿍 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를 주로 하는 등(Hammer & Turner, 1996)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일상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더라도 아버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녀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Mcdonald & Turner, 1996). Redin과 Diamond(1976)도 아버지가 사회적인 놀이에서 어머니보다 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의 특성은 특히 남아들에게 중요해서 다른 아이들과 지내는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w & Tinsley, 1987).

Pederson 과 동료들(1979)도 아버지는 유아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다른 어른들과도 좋은 애착관계를 유지하도록 유아를 도와주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다. Becker(1964)는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임했을 때 자녀는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건전한 성인이 되어서 성인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 부재와 상호작용,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Langlois Down(1980)은 아버지가 남아와 여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시키기 때문에 또래나 어머니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자는 아버지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아버지는 자녀의 놀이나 학습지 또는 습관형성 등에 다양하게 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어 다양한 자극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준다(최경순, 199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자녀의 도덕성 발달과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도덕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Hoffman(1975)은 친 사회적 도덕 가치에 대해 아버지가 나타낸 점수는 또래들이 평정한 남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점수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남을 밝혔고(Han, Langer, & Kohlberg, 1976), 역시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청소년과 아버지 사이의 점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효순과 지성애(2004)는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화 담당자로서 유아에게 모델이 되며, 훈육자이고 자녀의 애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훈육과 애정은 유아의 도덕적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버지가 유아에게 애정표현을 잘 해주는 경우에 유아의 죄책감은 높아지고 도덕성표현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Biller(1974)는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이들은 특히 학업성취와 도덕적 발달 그리고 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또한 Hoffman(1975)은 남아에 있어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와 도덕적 발달과의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아버지의 도덕적인 특성을 습득하게 되며 아버지의 훈육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즉, 바람직한 도덕성을 지닌 아버지가 있는 유아는 아버지의 태도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CoLeman & Karraker, 1997) 혹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Dorsey, et al, 1999)으로 정의된다. 또한 Johnson과 Mash(1989)는 자녀 양육뿐 아니라 자녀와의 문제 해결도 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지각이라고 하였다. 양육효능감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하는 필요한 부모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인경, 2004). 최근의 연구(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Froup, 1999)에서는 부모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 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Bandura(1997)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자기 효능감을 통해, 삶이 질적으로 혁신되고 창조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 사람들은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 만일 자기의 행동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김의철·박영신, 2001, 재인용). 또한 bandura(1977, 1982)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기대, 사고의 신념, 동기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 등의 인지적,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 효능감 기대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며, 또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저항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변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다.

Adams와 Davis(1978)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을 중요한 책임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Teti, 'Connell, Reiner(1997) 연구에서 부모들은 부모역할에서 유능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필요로 하는데, 부모역할에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부모와 아동 발달의 결과에서 매우 중요하며, 부모역할에서 좀 더 자신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믿는 부모는 아동의 행동문제나 기질적인 문제에 도전받거나 직면했을 때에도 부모의 높은 양육 효능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습득,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노력,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자녀교육 노력,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Coleman & Karraker, 2003; Desjardin, 2003).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양육을 주로 어머니가 맡고 있어서인 것 같다.

Park(1996)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방식이나 형태가 어머니와 다를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어느 성의 부모라도 자녀 발달에서 더 큰 몫을 가진다는 결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Pleck(1993)은 지난 2세기 동안 아버지의 역할은 도덕적 안내자, 가족 부양자, 성역할 모델, 양육적인 보호자로 변화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시대나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까지 아버지 역할에 적용되고 있다(최경순, 1992, 재인용). 그러므로 부모 효능감을 지각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양쪽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양육 참여도

현대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과거에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더 이상 양적인 참여적 요구에서 벗어나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사회적 참여의 적극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아동에게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이현정, 2005). 양육참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면서, 학자마다 양육참여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이용이, 2007; 이지희, 2005).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Lamb(1975)의 아버지 참여의 개념에는 아버지가 경제능력을 갖고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사회전통이나 가치철학을 전달하는 역할, 가정의 통솔자로 어머니와 협력하여 가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자녀의 지적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 Bigner(1977)의 아버지 참여의 개념에는 아동돌보기, 아동과 놀이 및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식사에절을 가르치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을 가르치고 공동생활에서의 아동과의 활동, 그리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동의 신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신체적 애정표시 및 훈육하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 Baruch와 Barnett의 아버지 참여의 개념에는 유아들의 모임(소풍, 운동회)이나 병원, 유치원,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 아동의 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보살피주기, 아동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주기, 아동과 함께 외출하기, 아동의 건강 보살피기 등이 포함된다(황순영, 2004, 재인용).

국내연구로 최경순(1992)은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는 자녀양육에 함께 보

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정도를 의미하며 그 하위개념으로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인지적 성취지도가 포함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이영환(1999)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개념을 확장하여 ‘생산적 아버지 노릇’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에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아버지 자신의 시간·애정·에너지 등을 투자하는 ‘자발적인 참여 행동’과, 물질적 자원 등 자녀양육에 투자하고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로서 간주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등을 이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아버지 참여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다양하며 그 자료들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파악해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을 의미하며, 그 하위개념으로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놀이지도, 가사활동이 포함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질과 양적측면은 자녀의 지적능력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성과 지능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생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지적, 사회적발달이 촉진되고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되며, 덜 정형화된 신념을 갖게 된다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양육참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가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밝혀지고 있다. Shore(1997)는 유아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서 아버지의 헌신이 유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유아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의 노력은 유아의 초기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iller(1981)는 많은 시간을 집에 있으면서 자녀를 보살피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는 긍정적 성격을 갖는 반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

버지를 가진 자녀는 방어적이며 거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과 질적으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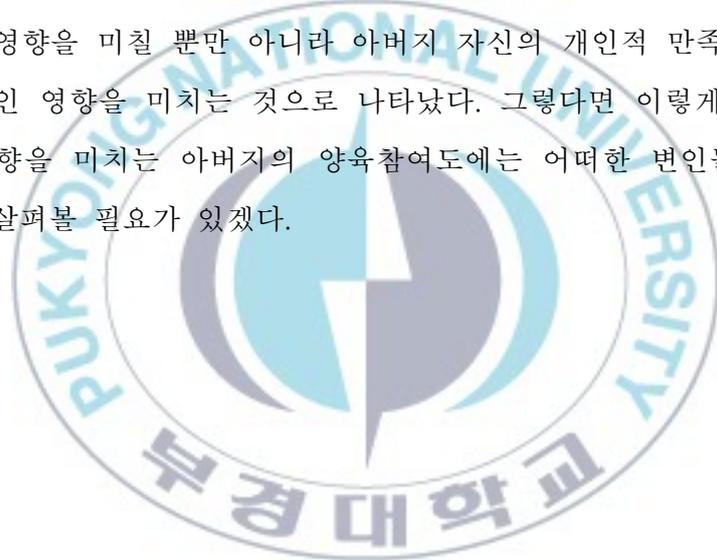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긍정적 사회적 능력인 지도력, 유능성과 상관성이 높음이 드러났고(성귀자, 1999; 최한순, 1995),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하였다(김정신, 2000).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오미경, 1990), 특히,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성수현, 1996).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상위집단의 유아들이 보다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원, 2003). 이와 같이 실질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인지, 성격, 성역할, 사회성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이지희, 2005).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iley, 1990), 전영자(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성장과 가족역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면 아버지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Russell, 1982; Sagi, 1982), 아버지 자신의 인성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Riley, 1990), 부모 역할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모역할에서의 갈등도 적어지는(양미경, 1996)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자신의 성숙과 발달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부모역할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부모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개발하고 인성을 재구조화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서혜영, 1999; 유동미, 2003).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발달과 배우자의 정서 및 가족역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만족 및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4.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운명이나 주변상황으로 돌리는 사람들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한다(Blanley, 1985). 이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이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개념을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화한 것으로 ‘부모효능감’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양육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다시 말해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Johnston & Mash, 1989), 이러한 부모효능감 역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기현, 2000)

부모효능감과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우희정(1983)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진숙(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민주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임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확인되었다.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2~6세의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에 부모 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강한 직접적인 예측요인이며 양육의 질적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Coleman & Karraker, 1997). 그러나 대체로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 등 자녀양육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녀양육의 양적 측면인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숙과 문혁준(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시 적극적 참여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적극적 참여'는 양육행동의 4개의 하위항목중 하나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며 그 항목의 구성도 5개 항목에 불과하여 '양육참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대상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버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역할기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교육제도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새롭게 아버지가 되는 남성들은 그들 자신이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조선화, 1998).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년들은 아버지 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지식 양육 기술 또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조선화, 1998, Berman & pederson, 1987; Klinman, 1986; 재인용). 이러한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그들 자신의 가정을 꾸미게 되어도, 사회적인 제도와 체제는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기술을 발달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조선화, 1988; Bolton, 1986; Levant, 1988, 재인용).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들이 부모로서 어느 정도의 효능감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시 자신이 부모역할을 잘 수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부모효능감’으로 정의하고,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5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 중 396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기재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38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수준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변인 분포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성별	남	201	52.9
	여	179	47.1
유아연령	만5세	183	48.2
	만4세	134	35.3
	만3세	63	16.6
유아출생순위	첫째	153	40.3
	둘째	181	47.6
	셋째	45	12.1
	25세이상~30세미만	8	2.1
아버지 연령	30세~35세	67	17.6
	35세~40세	206	54.2
	40세~45세	84	22.1
	45세 이상	15	3.9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107	28.2
	전문대졸업	113	29.7
	대학교 졸업	129	33.9
	대학원이상	31	8.2

아버지 직업	전문직	38	10.0
	생산직	76	20.0
	서비스직	27	7.1
	판매직	34	8.9
	사무직	143	37.6
	기타	62	16.3
아버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	30시간미만	9	2.4
	30시간~50시간	208	54.7
	50시간~70시간	138	36.3
	70시간이상	25	6.6
아버지 평균소득	100만원미만	6	1.6
	100만원~200만원	57	15.0
	200만원~300만원	153	40.3
	300만원~400만원	121	31.8
	400만원이상	43	11.3
배우자 직업유무	있다	133	35.0
	없다	247	65.0

2. 연구도구

가. 아버지 양육효능감 척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본 검사는 최형성(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다섯 가지 양육효능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 양육효능감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Cronbach α
전반적인 양육능력	1, 4, 5, 9, 10, 14, 18, 23, 28, 33, 36	.88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2, 6, 11, 15, 19, 24, 29	.83
의사소통능력	3, 7, 12, 16, 20, 22, 25, 30, 34	.86
학습지도능력	8, 21, 26, 31, 35, 37	.82
훈육능력	13, 17, 27, 32	.73
전 체	37문항	.96

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척도

자녀 양육 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해경(200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지도, 놀이지도, 생활지도, 가사활동의 4개 하위영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네 가지 양육참여행동을 평소에 얼마나 수행하는 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Cronbach α
학습지도	1, 7, 10, 13	.63
놀이지도	2, 3, 8, 16, 17	.73
생활지도	4, 9, 11, 12, 14	.80
가사활동	5, 6, 15	.68
전체	17문항	.86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한 후 응답하여 유치원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총 396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기재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38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은 첫째, t검증, f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pearson 상관계수로 상관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가 상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효능감

가.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F=2.36, p<.05$), 훈육능력($F=3.40, p<.01$)에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양육능력효능감은 만 45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육능력효능감은 35세~40세미만 연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육능력은 35세~40세미만과 40세~45세미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F=1.57, p>.05$) 의사소통능력($F=1.38, p>.05$), 학습지도능력($F=2.17, p>.05$)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è</i>
전반적 양육 능력	25세이상~30세미만(a)	8	3.31	.32	2.36*	.053	e>d
	30세~35세(b)	67	3.70	.42			

	35세 ~ 40세(c)	206	3.73	.52		
	40세 ~ 45세(d)	84	3.60	.51		
	45세 이상(e)	15	3.79	.40		
건강한 아동 양육 능력	25세이상~30세미만(a)	8	3.27	.32		
	30세 ~ 35세(b)	67	3.53	.47		
	35세 ~ 40세(c)	206	3.60	.56	1.57	.182
	40세 ~ 45세(d)	84	3.47	.55		
	45세 이상(e)	15	3.56	.41		
의사 소통 능력	25세이상~30세미만(a)	8	3.47	.47		
	30세 ~ 35세(b)	67	3.73	.43		
	35세 ~ 40세(c)	206	3.72	.52	1.38	.241
	40세 ~ 45세(d)	84	3.60	.50		
	45세 이상(e)	15	3.68	.44		
학습 지도 능력	25세이상~30세미만(a)	8	2.90	.50		
	30세 ~ 35세(b)	67	3.44	.47		
	35세 ~ 40세(c)	206	3.35	.61	2.17	.072
	40세 ~ 45세(d)	84	3.26	.56		
	45세 이상(e)	15	3.30	.65		
훈육 능력	25세이상~30세미만(a)	8	3.25	.38		
	30세 ~ 35세(b)	67	3.64	.53		
	35세 ~ 40세(c)	206	3.72	.62	3.40**	.010 c>d
	40세 ~ 45세(d)	84	3.48	.54		
	45세 이상(e)	15	3.65	.49		
양육 효능감	25세이상~30세미만(a)	8	3.24	.33		
	30세 ~ 35세(b)	67	3.61	.42		
	35세 ~ 40세(c)	206	3.62	.53	2.19	.069
	40세 ~ 45세(d)	84	3.48	.51		
	45세 이상(e)	15	3.60	.44		

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F=4.29, p<.01$), 의사소통능력($F=2.80, p<.05$), 훈육능력($F=3.18, p<.05$)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인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 모두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의 아버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차이는 대학원 이상 교육수준과 고졸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F=2.18, p>.05$)과 학습지도능력($F=2.32, p>.05$)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효능감이 높으나, 전반적 양육능력과 학습지도능력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N	M	SD	F	p	Scheffe	
전반적 양육 능력	고졸(a)	107	3.64	.53	2.18	.090	
	전문대졸(b)	113	3.71	.44			
	4년제졸(c)	129	3.66	.52			
	대학원이상(d)	31	3.88	.46			
건강한 아동 양육 능력	고졸(a)	107	3.47	.58	4.29**	.005	d>a d>c
	전문대졸(b)	113	3.56	.45			
	4년제졸(c)	129	3.54	.54			
	대학원이상(d)	31	3.85	.53			

의사 소통 능력	고졸(a)	107	3.63	.54	2.80*	.040	d>a
	전문대졸(b)	113	3.70	.45			
	4년제졸(c)	129	3.66	.51			
	대학원이상(d)	31	3.92	.44			
학습 지도 능력	고졸(a)	107	3.26	.62	2.32	.075	
	전문대졸(b)	113	3.34	.54			
	4년제졸(c)	129	3.34	.57			
	대학원이상(d)	31	3.56	.61			
훈육 능력	고졸(a)	107	3.56	.58	3.18*	.024	d>a
	전문대졸(b)	113	3.64	.54			
	4년제졸(c)	129	3.63	.62			
	대학원이상(d)	31	3.93	.60			
양육 효능감	고졸(a)	107	3.51	.54	3.29*	.021	d>a
	전문대졸(b)	113	3.59	.44			
	4년제졸(c)	129	3.57	.52			
	대학원이상(d)	31	3.83	.49			

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전반적 양육능력($F=2.57, p<.05$), 건강한 아동양육능력($F=3.05, p<.01$), 의사소통능력($F=2.70, p<.05$), 학습지도능력($F=4.06, p<.001$), 훈육능력($F=3.10, p<.05$) 모두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모두에서 아버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그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전반적 양육 능력	전문직(a)	38	3.72	.55	2.57*	.026	e>c
	생산직(b)	76	3.58	.51			
	서비스직(c)	27	3.48	.48			
	판매직(d)	34	3.71	.47			
	사무직(e)	143	3.77	.48			
	기타(f)	62	3.69	.49			
건강한 아동 양육 능력	전문직(a)	38	3.65	.58	3.05**	.010	e>c
	생산직(b)	76	3.42	.52			
	서비스직(c)	27	3.40	.49			
	판매직(d)	34	3.46	.48			
	사무직(e)	143	3.66	.53			
	기타(f)	62	3.53	.55			
의사 소통 능력	전문직(a)	38	3.76	.49	2.70*	.021	e>b
	생산직(b)	76	3.54	.50			
	서비스직(c)	27	3.56	.53			
	판매직(d)	34	3.69	.40			
	사무직(e)	143	3.77	.48			
	기타(f)	62	3.68	.54			
학습 지도 능력	전문직(a)	38	3.44	.59	4.06***	.001	e>c
	생산직(b)	76	3.17	.61			
	서비스직(c)	27	3.11	.60			
	판매직(d)	34	3.31	.46			
	사무직(e)	143	3.47	.53			
	기타(f)	62	3.28	.63			
훈육 능력	전문직(a)	38	3.74	.62	3.10**	.009	e>c
	생산직(b)	76	3.50	.55			
	서비스직(c)	27	3.41	.59			
	판매직(d)	34	3.67	.51			
	사무직(e)	143	3.75	.58			
	기타(f)	62	3.59	.63			

양육 효능감	전문직(a)	38	3.66	.53	3.45**	.005	e>c
	생산직(b)	76	3.44	.50			
	서비스직(c)	27	3.39	.51			
	판매직(d)	34	3.57	.41			
	사무직(e)	143	3.68	.49			
	기타(f)	62	3.55	.53			

라.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F=2.85, p<.05$), 훈육능력($F=3.56, p<.05$)에서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인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5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육능력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와 30시간~50시간 미만인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F=2.43, p>.05$), 의사소통능력($F=1.60, p>.05$), 학습지도능력($F=1.82, p>.05$)에서는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5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7> 아버지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전반적 양육 능력	30시간 미만(a)	9	3.60	.40	2.43	.065	
	30시간~50시간(b)	208	3.74	.45			
	50시간~70시간(c)	138	3.66	.56			
	70시간이상(d)	25	3.48	.51			
건강한 아동 양육 능력	30시간 미만(a)	9	3.48	.40	2.85*	.037	b>d
	30시간~50시간(b)	208	3.60	.49			
	50시간~70시간(c)	138	3.52	.61			
	70시간이상(d)	25	3.29	.47			
의사 소통 능력	30시간 미만(a)	9	3.60	.41	1.60	.190	
	30시간~50시간(b)	208	3.73	.45			
	50시간~70시간(c)	138	3.65	.58			
	70시간이상(d)	25	3.54	.45			
학습 지도 능력	30시간 미만(a)	9	3.22	.49	1.82	.143	
	30시간~50시간(b)	208	3.39	.54			
	50시간~70시간(c)	138	3.29	.65			
	70시간이상(d)	25	3.15	.52			
훈육 능력	30시간 미만(a)	9	3.58	.41	3.56*	.014	b>d
	30시간~50시간(b)	208	3.70	.55			
	50시간~70시간(c)	138	3.62	.64			
	70시간이상(d)	25	3.30	.60			
양육 효능감	30시간 미만(a)	9	3.50	.39	2.70*	.046	b>d
	30시간~50시간(b)	208	3.63	.46			
	50시간~70시간(c)	138	3.55	.57			
	70시간이상(d)	25	3.35	.46			

다.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전반적 양육능력($F=1.18, p>.05$), 건강한 아동양육능력($F=.99, p>.05$), 의사소통능력($F=1.34, p>.05$), 학습지도능력($F=1.19, p>.05$), 훈육능력($F=.76, p>.05$)에서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전반적 양육능력	100만원미만	6	3.39	1.18	.319
	100만원~200만원	57	3.61		
	200만원~300만원	153	3.70		
	300만원~400만원	121	3.69		
	400만원이상	43	3.77		
건강한 아동양육 능력	100만원미만	6	3.24	.99	.411
	100만원~200만원	57	3.47		
	200만원~300만원	153	3.58		
	300만원~400만원	121	3.56		
	400만원이상	43	3.58		
의사소통 능력	100만원미만	6	3.35	1.34	.253
	100만원~200만원	57	3.60		
	200만원~300만원	153	3.71		
	300만원~400만원	121	3.69		
	400만원이상	43	3.75		

학습지도 능력	100만원미만	6	3.00	.61	1.19	.317
	100만원~200만원	57	3.26	.52		
	200만원~300만원	153	3.34	.58		
	300만원~400만원	121	3.34	.60		
	400만원이상	43	3.45	.59		
훈육능력	100만원미만	6	3.38	.31	.76	.561
	100만원~200만원	57	3.58	.51		
	200만원~300만원	153	3.65	.57		
	300만원~400만원	121	3.63	.63		
	400만원이상	43	3.74	.66		
양육 효능감	100만원미만	6	3.27	.33	1.17	.322
	100만원~200만원	57	3.50	.42		
	200만원~300만원	153	3.60	.51		
	300만원~400만원	121	3.58	.54		
	400만원이상	43	3.66	.50		

바.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t=2.79, p<.01$), 건강한 아동양육능력($t=2.56, p<.05$), 의사소통능력($t=2.83, p<.01$), 훈육능력($t=2.23, p<.05$)에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인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은 모두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능력($t=1.72,$

p>.05)에서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t</i>	<i>p</i>
전반적 양육능력	있다	133	3.78	.46	2.79**	.005
	없다	247	3.64	.51		
건강한 아동양육 능력	있다	133	3.65	.54	2.56*	.011
	없다	247	3.50	.53		
의사소통 능력	있다	133	3.78	.45	2.83**	.005
	없다	247	3.63	.52		
학습지도 능력	있다	133	3.40	.54	1.72	.086
	없다	247	3.30	.60		
훈육능력	있다	133	3.73	.59	2.23*	.026
	없다	247	3.59	.58		
양육효능감	있다	133	3.67	.48	2.55*	.011
	없다	247	3.53	.51		

2.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도

가.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F=2.72, p<.05$), 가사활동($F=3.55, p<.01$)에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행동은 30세~35세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활동행동은 35세~40세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F=2.17, p>.05$), 놀이지도($F=1.54, p>.05$)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학습 지도	25세 이상~30세 미만(a)	8	2.69	0.79	2.17	.072
	30세~35세(b)	67	3.27	0.53		
	35세~40세(c)	206	3.22	0.61		
	40세~45세(d)	84	3.13	0.59		
	45세 이상(e)	15	3.27	0.66		
놀이 지도	25세 이상~30세 미만(a)	8	3.20	1.06	1.54	.189
	30세~35세(b)	67	3.61	0.53		
	35세~40세(c)	206	3.63	0.60		
	40세~45세(d)	84	3.54	0.59		
	45세 이상(e)	15	3.44	0.47		

생활 지도	25세 이상~30세미만(a)	8	3.78	0.64	2.72*	.030	b>d
	30세~35세(b)	67	4.03	0.44			
	35세~40세(c)	206	3.96	0.54			
	40세~45세(d)	84	3.78	0.55			
	45세 이상(e)	15	3.96	0.20			
가사 활동	25세 이상~30세미만(a)	8	2.75	0.99	3.55**	.007	c>e
	30세~35세(b)	67	3.22	0.85			
	35세~40세(c)	206	3.31	0.80			
	40세~45세(d)	84	2.99	0.72			
	45세 이상(e)	15	2.91	0.85			
양육 참여 행동	25세 이상~30세미만(a)	8	3.10	0.76	3.36**	.010	c>d
	30세~35세(b)	67	3.53	0.44			
	35세~40세(c)	206	3.53	0.50			
	40세~45세(d)	84	3.36	0.48			
	45세 이상(e)	15	3.39	0.33			

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1>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F=4.62, p<.01$)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이상인 경우 놀이지도 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인 경우 놀이지도 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F=2.07$, $p>.05$), 생활지도($F=.20$, $p>.05$), 가사활동($F=1.34$, $p>.05$)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학습지도	고졸(a)	107	3.13	.65	2.07	.104
	전문대졸(b)	113	3.20	.53		
	4년제졸(c)	129	3.19	.51		
	대학원이상(d)	31	3.43	.58		
놀이지도	고졸(a)	107	3.45	.57	4.62**	.003
	전문대졸(b)	113	3.62	.63		
	4년제졸(c)	129	3.61	.58		
	대학원이상(d)	31	3.88	.51		
생활지도	고졸(a)	107	3.93	.48	.20	.894
	전문대졸(b)	113	3.92	.54		
	4년제졸(c)	129	3.91	.53		
	대학원이상(d)	31	3.99	.61		
가사활동	고졸(a)	107	3.18	.76	1.34	.261
	전문대졸(b)	113	3.17	.81		
	4년제졸(c)	129	3.17	.82		
	대학원이상(d)	31	3.47	.85		
양육참여 행동	고졸(a)	107	3.43	.47	2.47	.062
	전문대졸(b)	113	3.48	.50		
	4년제졸(c)	129	3.47	.49		
	대학원이상(d)	31	3.70	.53		

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F=4.02, p<.001$), 가사활동($F=3.11, p<.01$)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놀이지도, 가사활동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e</i>
학습지도	전문직(a)	38	3.24	.55	1.86	.101
	생산직(b)	76	3.06	.55		
	서비스직(c)	27	3.08	.69		
	판매직(d)	34	3.14	.58		
	사무직(e)	143	3.29	.58		
	기타(f)	62	3.22	.66		
놀이지도	전문직(a)	38	3.71	.60	4.02***	.001
	생산직(b)	76	3.43	.54		
	서비스직(c)	27	3.29	.63		
	판매직(d)	34	3.68	.54		
	사무직(e)	143	3.70	.58		
	기타(f)	62	3.55	.63		
생활지도	전문직(a)	38	3.97	.51	1.58	.165
	생산직(b)	76	3.87	.46		
	서비스직(c)	27	3.70	.67		

	판매직(d)	34	3.96	.41			
	사무직(e)	143	3.95	.56			
	기타(f)	62	4.00	.51			
가사활동	전문직(a)	38	3.46	.76	3.11**	.009	a>d
	생산직(b)	76	3.10	.77			
	서비스직(c)	27	3.07	.75			
	판매직(d)	34	2.83	.81			
	사무직(e)	143	3.30	.81			
	기타(f)	62	3.16	.83			
양육참여 행동	전문직(a)	38	3.59	.47	3.02**	.011	a>c
	생산직(b)	76	3.37	.40			
	서비스직(c)	27	3.29	.60			
	판매직(d)	34	3.40	.50			
	사무직(e)	143	3.56	.49			
	기타(f)	62	3.48	.52			

라.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F=5.24, p<.01$), 가사활동($F=4.41, p<.01$)에서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인 놀이지도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5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활동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지도와 가사활동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와 30시간~50시간 미만인 경우, 50시간~70시간 미만인 경우

와 7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F=2.43, p>.05$), 생활지도($F=.42, p>.05$)에서는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중 놀이지도와 가사활동에서 참여행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학습 지도	30시간미만(a)	9	3.16	.36	2.43	.065	
	30시간~50시간(b)	208	3.24	.56			
	50시간~70시간(c)	138	3.20	.62			
	70시간이상(d)	25	2.90	.75			
놀이 지도	30시간미만(a)	9	3.56	.43	5.24**	.001	b>d c>d
	30시간~50시간(b)	208	3.66	.57			
	50시간~70시간(c)	138	3.56	.62			
	70시간이상(d)	25	3.18	.55			
생활 지도	30시간미만(a)	9	3.80	.32	.42	.737	
	30시간~50시간(b)	208	3.92	.51			
	50시간~70시간(c)	138	3.96	.55			
	70시간이상(d)	25	3.88	.55			
가사 활동	30시간미만(a)	9	3.41	.91	4.41**	.005	b.c>d
	30시간~50시간(b)	208	3.26	.80			
	50시간~70시간(c)	138	3.18	.81			
	70시간이상(d)	25	2.67	.61			
양육 참여 행동	30시간미만(a)	9	3.48	.39	4.15**	.007	b>d c>d
	30시간~50시간(b)	208	3.52	.47			
	50시간~70시간(c)	138	3.47	.52			
	70시간이상(d)	25	3.16	.44			

마.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인 학습지도($F=1.47, p>.05$), 놀이지도($F=1.22, p>.05$), 생활지도($F=.13, p>.05$), 가사활동($F=.92, p>.05$) 모두에서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F</i>	<i>p</i>
학습지도	100만원미만	6	3.29	1.47	.211
	100만원~200만원	57	3.05		
	200만원~300만원	153	3.27		
	300만원~400만원	121	3.17		
	400만원이상	43	3.23		
놀이지도	100만원미만	6	3.57	1.22	.302
	100만원~200만원	57	3.47		
	200만원~300만원	153	3.60		
	300만원~400만원	121	3.59		
	400만원이상	43	3.73		
생활지도	100만원미만	6	3.90	.13	.973
	100만원~200만원	57	3.95		
	200만원~300만원	153	3.91		
	300만원~400만원	121	3.92		
	400만원이상	43	3.97		

	100만원미만	6	2.83	.66		
	100만원~200만원	57	3.30	.86		
가사활동	200만원~300만원	153	3.24	.77	.92	.454
	300만원~400만원	121	3.13	.89		
	400만원이상	43	3.15	.59		
	100만원미만	6	3.40	.37		
양육참여	100만원~200만원	57	3.44	.50		
행동	200만원~300만원	153	3.51	.48	.38	.821
	300만원~400만원	121	3.45	.52		
	400만원이상	43	3.52	.49		

바.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t=2.89, p<.05$), 놀이지도($t=2.89, p<.01$), 생활지도($t=2.21, p<.05$), 가사활동($t=4.25, p<.001$) 모두에서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5> 배우자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

배경변인		<i>n</i>	<i>M</i>	<i>SD</i>	<i>t</i>	<i>p</i>
학습지도	있다	133	3.32	.54	2.89**	.004
	없다	247	3.14	.62		
놀이지도	있다	133	3.71	.55	2.89**	.004
	없다	247	3.53	.61		
생활지도	있다	133	4.01	.48	2.21*	.028
	없다	247	3.88	.55		
가사활동	있다	133	3.43	.80	4.25***	.000
	없다	247	3.07	.78		
양육참여행동	있다	133	3.62	.44	4.09***	.000
	없다	247	3.40	.51		



3.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행동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행동 각 하위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로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는 <표 16>와 같다.

첫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양육참여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지도($r=.59, p<.01$), 놀이지도($r=.62, p<.01$), 생활지도($r=.61, p<.01$), 가사활동($r=.41,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건강한 양육능력은 양육참여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지도($r=.64, p<.01$), 놀이지도($r=.59, p<.01$), 생활지도($r=.56, p<.01$), 가사활동($r=.42,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은 양육참여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지도($r=.58, p<.01$), 놀이지도($r=.58, p<.01$), 생활지도($r=.61, p<.01$), 가사활동($r=.39,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넷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학습지도능력은 양육참여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지도($r=.59, p<.01$), 놀이지도($r=.55, p<.01$), 생활지도($r=.53, p<.01$), 가사활동($r=.38,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훈육능력은 양육참여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지도($r=.57, p<.01$), 놀이지도($r=.56, p<.01$), 생활지도($r=.62, p<.01$), 가사활동($r=.35,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6>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 간의 상관관계

변인	양육참여행동				양육효능감				
	학습 지도	놀이 지도	생활 지도	가사 활동	전반적 양육 능력	건강한 아동양육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학습 지도 능력	훈육 능력
학습지도	-								
놀이지도	.60**	-							
생활지도	.54**	.49**	-						
가사활동	.45**	.47**	.35**	-					
전반적 양육능력	.59**	.62**	.61**	.41**	-				
건강한 양육능력	.64**	.59**	.56**	.42**	.88**	-			
의사소통 능력	.58**	.58**	.61**	.39**	.91**	.87**	-		
학습지도 능력	.59**	.55**	.53**	.38**	.84**	.84**	.85**	-	
훈육능력	.57**	.56**	.62**	.35**	.83**	.81**	.84**	.78**	-

4.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 지를 탐색하기 위해 양육효능감을 예언변인으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예언하는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전반적 양육능력($\beta=.310$), 건강한 아동양육능력($\beta=.284$), 훈육능력($\beta=.161$)이 의미가 있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전체 변량 중 5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76]=132.95, p<.001$). 따라서 아버지가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 및 전반적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참여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인	<i>B</i>	<i>SE B</i>	β	ΔR^2	$R^2 \cdot F$
절편	.924	.133			
전반적 양육능력	.308	.081	.310***	.479	.511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262	.073	.284***	.026	132.95
훈육능력	.135	.057	.161***	.006	

*** $p<.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양육참여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런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 훈육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김선애(2009), 김정주·김용미(2008), 이슬기·전귀연·김수경(200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효능감이 높으나, 전반적 양육능력과 학습지도능력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한 아동양육 능력, 학습지도 능력이 높다는 김정주·김용미(2008)의 연구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자신감이 높다는 박은주(2002), 장석경(200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버지 역할을 위한 준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일부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직업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지위가 전문직, 관리직으로 높아질수록 부모효능감도 증대한다는 김선애(2009)의 연구,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 때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최미숙(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사무직, 전문직일 경우 직업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양육효능감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시간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이상~50시간미만인 경우로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많은 아버지들은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근무시간이 적은 아버지들은 도구적인 역할뿐 아니라 표현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동미(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버지의 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김진희(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는 아버지들이 일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때 자신을 유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아버지 자신의 소득과 양육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배우자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아버지가 부모로서 자각을 더 느낀다고 보고한 강란혜(2003), 최미숙(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나.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와 가사활동에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습지도와 놀이지도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으로 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아버지가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에 참여가 높게 나타난 문혁준·이지희(2005)의 연구와 아버지의 연령은 양육참여와 차이가 없다는 권희경(2009), 김정(2005), 장석경(2007), 한은규(2004), Volling와 Belsky(1991)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이상인 경우 놀이지도 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인 경우 놀이지도 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 일수록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고위전문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는 최한순(1995)의 연구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권희경(2009), 이문정(2008), 장석경(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양육참여도는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의 하위요인 중 놀이지도와 가사활동에서 참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McHale과 Huston(1984)의 연구와 아버지의 근무시간에 따른 자녀교육관과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교육 형태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이은화·이경우·이기숙(1991), 유동미(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다는 최미숙(2008)의 연구와 공무원, 전문직의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는 박미석(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직업이 안정된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경제적·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어 양육 참여에 관심이 많다고 한 우미경(2006), 이영미·민하영(2006), 한은규(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아버지의 부모역할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자였으나 최근에는 어머니들도 경제적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경제적·심리적인 여유를 갖기보다는 부부의 총 소득이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배우자의 취업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배우자가 취업모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취업모일 경우 아버지들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강란혜(2001), 김정(2005), 이지희(2005)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배우자가 취업을 하면 육아의 공동분담으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관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아버지가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능력 및 전반적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참여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orsey와 Klein과 Forehand(1999)의 연구결과인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동시에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또한 Mondell과 Tyler(1981)의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숙과 문혁준(2005)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며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참여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증진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종합해보면, 아버지가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고 이는 곧 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며,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역할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실적으로 직장과 일에 쫓겨 바쁘게 생활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점은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양육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효과적인 양육참여 방법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버지 역할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1982년 김혜영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거의 부재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부모교육에서 아버지의 유치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알아보는 최근의 연구(김정임, 2004)에서는 전체 160기관 중 144기관 (90%)이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 인식비교에 대한 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100%, 아버지 92.7%가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를 알아보고,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의 아버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훈육 능력에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교육수준, 직업,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배우자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양육참여도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지도에서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직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중 놀이지도와 가사활동에서 참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역시 교육수준, 직업,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배우자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참여할 기회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문지법 이외에 아버지들과의 심층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만3~5세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아버지, 예컨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기는 비단 자녀의 유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생애적인 과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인구학적인 변인만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뿐 아니라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직장관련 변인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란혜 (2001).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99-133.
- 강인삼 (1996). 사라져가는 아버지,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18.
- 공진수 (2006). 아버지 됴에 관한 연구(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박성연 (1995). 마이클 램 편저, 아버지의 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광웅·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8.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애·한유진 (2009). 아버지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김성희 (1989). 유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진·유안진 (1990).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김은정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 (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임 (200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 · 이신숙 · 신호식 (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1), 47-55.
- 김희주 (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미 · 박인전 (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 ·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세진 (20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 (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현 (2005). **두란노 아버지 학교 1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논문집 2**.
-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귀자 (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진 (2003).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 비교 조사: 한국과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0.
- 송효숙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

- 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병철 (1990). 한국 남성의 가족 역할. 한양대학교 논문집. 9.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우희정 (1983). 독자의 성격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3-90.
- 유동미 (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부모교육 요구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정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유치원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효순 · 정원식 (1994). **부모교육**.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유효순 · 지성애 (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은주영 · 류도희 · 이귀옥 (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이영미 · 민하영 (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 · 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2-7.
- 이영환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용이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화 · 이경우 · 이기숙 (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1(1), 105-137.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순·조희숙 (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학회지**, 9(2), 43-58.
- 이지영 (200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양육참여-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숙 (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2.
- 이현정 (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자각과 양육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이천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경·이지현 (2007).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양육참여도 및 그에 따른 유아의 자기능력지각.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25-241.
- 전영자 (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1, 159-177.
- 정현희·최경순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선일보 1999. 9. 18. 다음 세기에도 미국은 강대국 - 21세기 美지위 설문조사.
-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인경 (2004). 어머니의 인식, 양육효능감, 유아의 인지능력, 공유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유관조절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한순 (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규 (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자 (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정환 (2002). 아버지 역할 연구에 대한 문헌적 검토. 교수농총, 13, 495-526.
- 홍성숙 (2009). 유치원 행사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영 (2008).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순영 (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미·문혁준 (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Aldous, J., Mulligan, G. M., & Bjarnason, T. (1998). Fathering over time: Wath makes the dif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809-820.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9-40.

- Bigner, J. 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89-106.
- Billar, H. B. (1971). *Father, Child, and Sex Role: Parental Development of Personality Development* (Monstown Massacuseute: D. C. Heath and Co.), pp.35-40.
- Breslin, K, A(1980). Paternal Involvement and Attitude regarding Sterotypic Role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ational*, 40.
- Coleman, P. K., & Karraker, H.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i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ockett. L. J., Eggebeen. D,T., & Hawkins, A. J.(1993). Father's presenc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4(3), 355-376.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e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Frascarolo, F. (2004).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 caregiving and infantt sociabil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6), 509-521.
- Gilbert, G. R. Hanson & B. Davis (1982).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hip*, 31, 261-269.
- Harris, K. M. & Morgan, S. P. Fathers, Sons,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53(3), 1991.
- Herzog, E., & Sudia, C. E. (1973).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B. M. Caldwell & H. N.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m Psychologist*, 32, 644-657.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 psychology*, 24(3), 434-440.
- Marsiglio, W., Amato, P., Day, R. D.,&Lamb, M. E. (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beyond. *Journal of Marriahe and the Family*, 62, 1173-1191.
- Monda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x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al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arke, R. D. (1981). *Father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iley, D. (1990). Network influence on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In M. Cochran, M. Lerner, D. Riley, L. Gunnarsson, & C.

- Henderson(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pp.131-15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 G. (1982). Shared-caregiving families: An australian study. In M. E. Lamb,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Shore, R. (1997). *Wath have we learn? In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 into early development family and work institute*. N.Y:N.Y, 15-55.
- Teit,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Volling, B.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부 록

아버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 참여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이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읽으신 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기입**하신 후 유아 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황 희 숙

연구자 : 황 선 실

※ 다음은 유아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② 여 ()

2. 유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① 만5세() ② 만4세() ③ 만3세()

3. 유아의 출생순위는?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4. 귀하의 연령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 ① 만25세 이상~30세미만 () ② 만30세~35세 () ③ 만35~40세 ()
④ 만40~45세 () ⑤ 만45세 이상()

5.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 졸업 ()
④ (4년)대학교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 () -교수, 교사, 판사, 의사, 연구원, 군인, 예술인 등
② 생산직 ()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③ 서비스직() -음식점·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소방관, 경찰관 등
④ 판매직 () -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원 등
⑤ 사무직 ()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⑥ 기타 ()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7. 귀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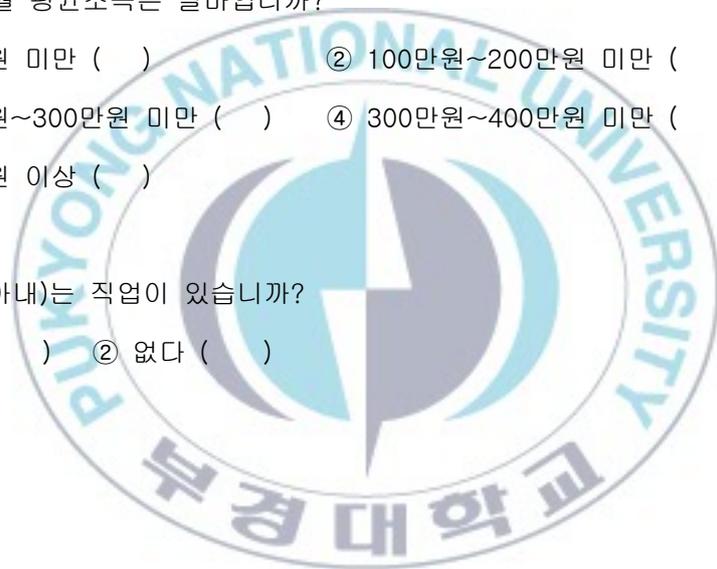
- ① 30시간 미만 () ② 30시간~50시간 미만 ()
③ 50시간~70시간 미만 () ④ 70시간 이상 ()

8.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9. 배우자(아내)는 직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다음 질문들은 자녀(유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실제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평상시 실제 생활을 근거로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2	아이의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게임, 퍼즐 맞추기 등)					
3	아이를 놀이터나 공원, 영화관에 데리고 간다.					
4	아이가 웃어른이나 선생님께 인사를 하도록 가르친다.					
5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다.					
6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준비해 주거나 만들어 준다.					
7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신문기사, 뉴스, 이야기 등을 한다.					
8	아이와 공놀이 같은 간단한 운동을 같이한다.					
9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도와준다. (이해하고, 나누고, 타협하는 등)					
10	아이의 재능계발을 위해 특기지도, 과외지도에 관심을 갖는다.(미술, 피아노 등)					
11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알려준다.					
12	공중도덕이나 질서 지키기 등 공동생활규칙을 가르친다.					
13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준다.					
14	아이가 사용한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가르친다.					
15	가족의 생활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건(옷, 식재료, 일상용품)을 직접 사러간다.					
16	아이를 안아주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표시하여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준다.					
17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한다.					

◆아버님께서 평소에 느끼시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3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4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5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6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7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9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	아이가 유치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2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13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14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15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6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17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8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19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21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22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23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4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5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26	아이의 방과 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27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8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29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30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1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32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33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34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5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36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7	아이가 방과 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